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을

#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통합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공격에 맞서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서, 한국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서, 진보가 단결해서 투쟁해야 한다는 대의 속에 진행돼 온 진보대통합이 지금 좌초 직전에 있다.

여기에는 진보대통합을 가로막으려는 정부와 지배자들의 각종 공격도 영향을 미쳤다. 진보대통합이 아니라 민주당까지 포함한 야권단일정당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태도도 걸림돌이 됐다. 참여당과의 통합 거부권을 진보신당에 준 합의문마저 거부하며 진보의 단결 염원을 외면한 진보신당 독자파의 태도도 유감스럽다.

그러나 그동안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 문제다.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진보대통합'의 이름 아래 친자본가당인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해 온 것이 진보대통합을 위기와 실패로 몰아 온 핵심 원인이다.**

진보대통합이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감동'과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냉소와 반발까지 일으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정부' 10년의 어두운 기억을 가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그 정부를 계승한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에 반발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쫓겨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는지 기억하고 있다. 85호 크레인에서 김주익 열사가 1백29일을 싸우다 목을 매 … 게 만들었던 것도 노무현 정권이 자본의 탐욕과 결탁했던 바로 그때였다.”(‘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금속노동자 선언’)

그럼에도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는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를 계속해 왔다. 특히 9월초 진보신당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도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 의사를 거듭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것은 사실상 진보신당 당대회에서 진보대통합 합의문을 부결하라고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보대통합’이 아니라 ‘진보대분열’을 자초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는 ‘참여당이 민주노동당보다 규모도 작고, 게다가 5·31 합의문을 승인하면서 좌경화했으니 그들과 통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참여당과 통합하더라도 노동조합 기반이 대거 이탈하지 않는 이상 노동자당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성격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참여



8월 28일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벌어진 참여당과의 통합 반대 캠페인. 그동안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많은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해 왔다.

당의 규모 등을 볼 때 진보정당이 통합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통합이 선거 득표에 일시적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당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좌경화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5.31] 합의문에는 참여당이 꿈꾸는 새로운 진보정당에 대한 의견은 토씨 하나 반영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참여당의 강령과 정책도 여전히 ‘FTA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다’, ‘해의 파병 가능성을 닫아둘 수 없다’, ‘고용유연성은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월 8일 참여당 중앙위원회에 보고된 내용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논의한 통합 진보정당의 강령 초안이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전반적으로 ‘반기업정서’가 드러”나 “편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파견제 철폐”나 “종속적 한미동맹체제” 같은 표현이 “적시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정체성 훼손

따라서, **이런 참여당과 통합하면 그것을 지렛대로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정체성은 훼손될 것이다.** 이미 참여당과의 통합 추진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은 급진적 성격의 강령을 후퇴시켰다. 또, 이정희 대표는 조중동과 인터뷰를 거부한다는 진보의 전통을 거슬러 얼마전 <동아일보>와 인터뷰했고, 거기서 “FTA는 어떤 나라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이런 후퇴는 진보정당의 기반인 노동조합과 조직 노동자들의 계급의식과 투지를 약화시킨다는 문제를 낳는다. 예컨대 민주노총은 8월 20일 ‘희망시국대회’를 개최하면서 민주당·참여당을 고려해서 ‘정리하고 철회’가 아니라 ‘한진 문제 평화적 해결’로 요구 수준을 낮췄다.

바로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 주요노동자 투쟁들에서 거둬 부정적 작용을 했던 것이다. ‘희망의 버스’가 보여 주듯이 기존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에 대한 의지는 결코 낮지 않은데 말이다.

물론 진보정당 밖의 개혁염원 대중을 견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촛불시위를 통해 급진화한 참여당 평당원·지지자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역시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보적 대안을 분명히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 가능하게 할 강력한 단결과 투쟁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현재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자들은 참여당과의 통합을 매듭짓겠다며, 수임기관 운영위원회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9월 25일 당대회 개최를 강행하려 한다. 이미 이를 위해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까지 받았다. ‘진보신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은 어차피 실패했으니, 선거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으로 진보대통합을 성공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진보신당이 빠진 상태에서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를 ‘진보대통합’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진보신당과의 통합이 일단 실패한 지금, 이런 시도는 진보 지지자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긴커녕 오히려 반발과 역효과만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시도는 진보신당 ‘통합파’가 진보대통합을 향해 다가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진보대통합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조차 ‘좌클릭’ 시늉을 하는 요즘, 진보정당의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은 참여당과의 통합에나 매달리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독립적 대안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한나라당 비민주당’의 공백

을 안철수 같은 인사들이 메우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대통합을 향해 오겠다는 진보 세력들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면서 투쟁 속에서 진보의 단결을 추구해야 옳다. 진보정당다운 독자적 정책과 요구들을 분명히 하면서 지역에서 기반을 다지며 다가오는 선거를 준비하는 게 옳다.

따라서 우리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한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 개최에 반대한다. 이런 반대를 거슬러 당대회가 개최된다면, 진보의 분열과 정체성 훼손을 낳고 노동자 단결과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참여당과의 통합 안건은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동참을 바란다.

## 이렇게 합시다

-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학생회, 각종 단체 차원에서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인 장소에 부착하고, 온라인에도 퍼 나릅시다.
-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의 대표자들이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 반대 입장을 취하도록 촉구합시다.
- 자신이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 대의원에게 9월 25일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도록 촉구합시다.
- 각종 진보 언론들에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기사나 독자편지 등을 보내 봅시다.
-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 각종 기사들을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공간에 퍼나르고 알립니다.
- 그 외에도 온갖 방법을 통해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저지합시다. 좋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010-7726-2792 김재현)

# 민주노동당 전국학위 지도부의 무원칙함과 비민주성을 비판한다

현재 민주노동당 전국 학생위원회 지도부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일부 학생 당원들이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을 축약해서 실는다.

민주노동당 전국 학생위원회(이하 전국학위)가 9월 7일 “희망의 새이름, 진보대통합. 힘 있는 진보가 탄생한다!”는 신문을 냈습니다.

이 신문에서 전국학위 지도부는 유시민과 이정희 대표의 사진을 부각해서 넣으면서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시민사회단체가 대통합을 추진합니다” 하며 마치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하 참여당)의 통합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전국학위장 정태호 동지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전국학위의 이런 태도는 비민주적일뿐 아니라 당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며, 당론에도 맞지 않습니다.**

현재 당내에서는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학생 당원들 사이에서도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까지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유일하게 통과된 것은 진보대통합입니다. 친자본가 정당인 참여당과의 통합을 열어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 9월 중으로 당대회를 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즉 참여당과 통합에 대한 당론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태호 동지는 “국참당과의 적극적인 통합 추진이라는 대다수 학생 당원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선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대다수 학생 당원들의 염원”은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전국학위 지도부는 과연 학생 당원들 사이에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참여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한 바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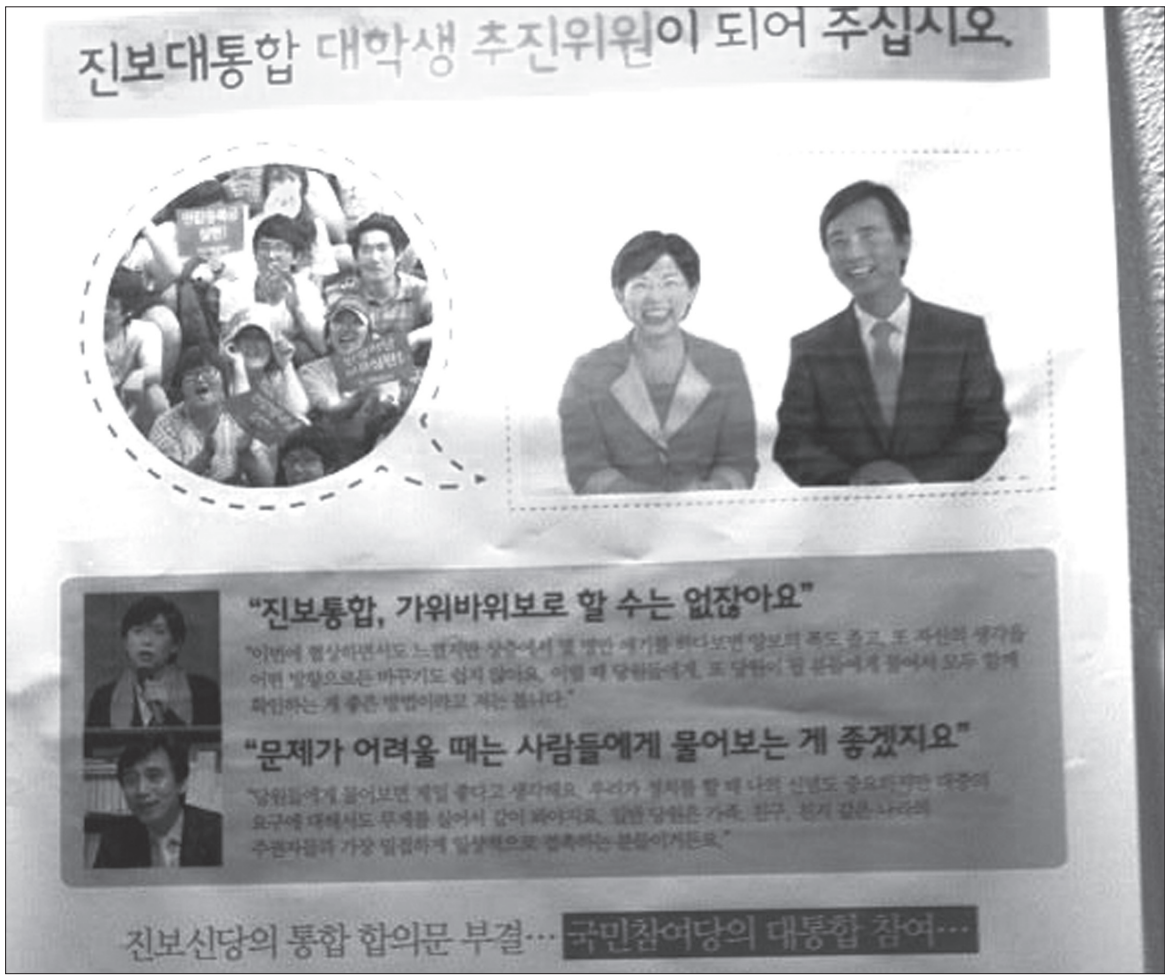
## 기업하기 좋은 환경

둘째, 참여당은 ‘진보대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태호 동지는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현실을 고정불변하는 존재로 보고 대중투쟁에 대한 전략과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여당의 변화를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여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단지 참여당의 ‘과거’가 아니라 참여당의 ‘현재’를 문제삼는 것입니다.

참여당은 여전히 해의 파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한미FTA 그 자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여당은 민주노동당과 계급적 기반이 다릅니다. 참여당의 주도적 당원들은 지난 정권의 관료 출신들이거나 친자본가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참여당과의 통합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말 두 마리가 합쳐지면 무조건 마차가 더 빨리 달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



민주노동당 전국학위 지도부는 민주노동당과 참여당의 통합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선전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리려고 한다면 그 마차는 오히려 시궁창에 빠지고 말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이루겠다는 참여당의 강령과 노동자 투쟁의 발전은 양립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오히려 “대중투쟁에 대한 전략과 안목이 없”는 것은 근시안적으로 선거에서 승리에만 골몰해 원칙 없이 통합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국학위가 할 일은 유시민의 이미지를 진보로 포장하며 사람

들에게 환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진보의 정체성에 바탕해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운동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전국학위 지도부가 민주적 토론도

없이 “학생위원회가 자기 입장을 가지고 정치선전을 해 나가는 것을 시비하는” 것입니다. 전국학위 지도부는 패권적으로 참여당과의 통합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김무석(건국대), 김소망(건국대), 강민선(경성대), 김영익(고려대), 김준호(고려대), 김지윤(고려대), 소민호(고려대), 이원웅(고려대), 권기봉(공주교대), 이아혜(국민대), 박용석(명지대), 김평구(부산대), 박연오(부산대), 박준희(부산대), 이동엽(성균관대), 임준형(성균관대), 조승수(성균관대), 김승주(이화여대), 성지현(이화여대), 양효영(이화여대), 장수영(이화여대), 오선희(인하대), 배상진(청주교대), 양유진(한국외대), 이종태(한국외대), 진경태(한국외대)

## 참여당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

참여당과의 통합 찬성파들은 ‘참여당과의 통합으로 덩치를 키우면, 내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 단체를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실질적 진보와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한 덧셈만 있을뿐, 정작 참여당의 성격이 진정한 진보와 개혁에 부합하는가라는 물음이 빠져 있다.

민주노동당 일부 지도자들은 참여당이 ‘당원 민주주의를 실천한다. 평당원 중에 노동자가 많다’는 점만 내세우지 참여당의 진정한 성격을 말하지는 않는다. 유시민도 “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며 몰타기를 한다.

그러나 **참여당의 진정한 성격을 규명하려면 우리는 참여당의 계급 기반과 강령(이데올로기), 실천을 함께 봐야 한다.** 먼저 참여당은 노무현 정부의 고

위관료 출신들이 주도해 만든 당이다.

당대표 유시민은 노무현 정부 장관 출신이고, 고문 이재정은 참여정부 때 장관을 지냈고 기업주들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처벌된 전력도 있다. 참여당이 각종 선거에 출마시켰던 후보들 속에도 전현직 기업 고위 임원들이 포함돼 있다.

참여당의 돈도 진보정당처럼 노동자들의 당비와 지지금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재 참여당은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당비보다 ‘정치 자금 펀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 확연한 차이

9월 8일 참여당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강령정책분과위원회 보고를 보면 진보정당과 참여당의 계급 기반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들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논의 중이던 강령안에 대해 “‘재벌 해체’,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상충하는 일부 용어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드러나는 것 역시 편향적 태도”이며 “노동정책을 앞세우고, 이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어 ‘노동자 정당’, ‘노동조합의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결국 참여당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처럼 자본가들의 주요 정당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친자본가당이다.** 그래서 참여당은 “뚜렷한 계급성을 ‘진보의 진입 장벽’이라며 부담으로 여긴다. 이는 노동계급의 대중성에 기반한 민주노동총과 확연한 차이를 가진다.”(민주노동총 박성식 부대변인) 유시민도

“참여당은 국민의례를 하고 민주노동당은 민중의례를 한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다”고 했다.

참여당이 ‘반성’과 ‘성찰’을 하며 변했다는 말도 진실이 아니다. 참여당은 “기업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으며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한다”는 강령을 갖고 있고, 노무현이 했던 한미FTA 협상 자체는 여전히 옳았다고 주장한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파병을 강행했으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계획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해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참여당이 제주 해군기지에 일관되게 반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진보정당과 참여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 속에는 민주노동당 허세욱 열사 등 민주정부 10년간 죽어 간 열사들의 피까지

흐르고 있다. 참여당과 한두 켠점에서 제휴는 가능할지 몰라도 통합의 대상은 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민주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이념도, 가치도, 정책도, 문화도, 방식도 다른 정당들이 하나로 합치는 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가능한 일인가?”라고 했는데, 이것을 참여당과의 통합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일관된 태도일 것이다.

민주노동총 김영훈 위원장의 말처럼 애초 진보대통합의 목적은 “대중조직이 하나로 더 크게 단결해 힘차게 투쟁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단결하고 투쟁할 때 실질적 진보와 개혁이 가능한 것이지,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할 친자본가당과 통합하면서 국회 의석만 늘린다고 자동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